

고품질 개량토종닭으로 일본시장 연다

◇ 취재 / 김종준 기자
(jjun@poultry.or.kr)



△토종닭 산업은 유통기반이 정비되면 무한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심달현 훈닭영농조합법인 회장

소비자의 입맛은 시대가 흐를수록 까다롭게 변하고 있다. 식품은 안전성과 맛이 견비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산에 있어 고품질을 유지하는 사양기술과 유통에서 잘 정비된 물류시스템, 도계 단계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 라인을 갖춘다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안전성 확보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8월에 토종닭 및 육계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모여 훈닭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생산농가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고품질과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업체로 부상한 훈닭영농조합법인의 경쟁력을 점검하여 보았다.

상호보완방식 조합원 구성

훈 닭영농조합법인은 토종닭 및 육계를 생산하여 내수판매 및 수출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료, 종계, 부화, 실용계 사육, 유통, 도계 단계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조합원 구성은 사료부문에 J사료, 종계는 한협축산, 부화는 한협축산과 풍년이 담



△짭짭한 맛의 차별화의 비밀은 개량토종닭의 사육일과 관계가 있다.

당하고, 실용계 사육 및 유통은 미림영농, 연산식품, 상일C&B, 우주골이 전담하며, 도계는 H사에서 지원하도록 구성하였다. 더불어 분야별 조합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유 역할은 식품유통 전문업체인 CJ푸드시스템가 전담하고 있다.

맛과 품질 차별화로 경쟁력 획득

현재 국내 개량토종닭 상품은 외국에 비하여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타육류(소고기, 돼지고기)에 비하여 소비량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개량토종닭의 경우 튀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육계와 음식 용도가 차별화 되어 있다. 개량토종닭의 맛은 70~75주를 사육해야 짭짭하면서도 부드러운 육질이 일반 육계와 완전 차별화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심달현 훈 닭영농조합법인 회장에 의하면 훈 닭영농조합법인은 토종닭의 특징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백화점 및 대형매장에 납품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훈 닭영농조합법인에서 거래하는 백화점은 중상층이 밀집되어 있는 목동의 신세계, 행복한세상이고, 대형할인매장은 삼성홈플러스, 롯데마그넷, 한화마트, LG마트 등과 거래를 추진중이며 외식업체 진출도 모색중이다.

매장과 거래시 훈 닭영농조합법인만이 가진 통합 브랜드 “정품眞 토종닭”을 사용하게 되는데 정품眞 토종닭은 토코페롤이 강화되어 성인병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닭으로 판매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1월 현재 1일 판매 물량은 200수로 아직은 적은 물량이지만 외식업체와 할인매장과의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가는 도체육 1.3kg의 경우 약 6,900원으로 일반 개량토종닭보다 600원 이상의 마진을 얻고 있다. 훈 닭영농조합법인 박성진 총무에 의하면 CJ푸드시스템에서 개발한 정품眞 브

랜드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CJ의 마케팅 전략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혼탁영농조합법인 가진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사장은 CJ푸드시스템은 “정품眞 토종닭” 브랜드를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정품眞 토종닭은 맛 좋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할 뿐만 아니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프로그램과 유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혼탁영농조합법인은 현재 농장에서 판매지까지 직접 납품에 따른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J사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도 협의하는 등 물류 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중이다.

일본 닭고기 틈새시장 공략

정품眞 토종닭은 내수 시장 점유에만 치중하지 않고 수출도 모색하고 있다. 혼탁영농조합법인이 수출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일본에서 광우병 파동 후 일본 닭고기 소비가 대폭 증가하면서이다.

일본내 닭고기 가격 상승과 수요가 증가하자 일본 유통업자들은 일본의 지도리와 유사한 우리나라 개량

토종닭을 구매하기 위해 혼탁영농조합법인과 접촉하였다. 일본 바이어들은 국내 개량토종닭 시장 조사후 국산 개량토종닭 수입 의지를 시사하여 혼탁영농조합법인에서도 수출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혼탁영농조합법인의 마케팅 업체인 CJ푸드시스템에서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출 추진이 중단되었다. 정부 입장은 일본의 수입규제 조항중 ND 발생 규제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수출 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개량토종닭 수출에 문제

뿐만 아니라 육계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안이어서 ND 발생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수출을 거론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혼탁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본바이어의 요청으로 협상을 진행중에 있고, 연내 일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일본 수출이 성공한다면 국내 개량토종닭 산업의 안정화는 물론 국내산 닭고기의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혼탁영농조합법인이 그동안 닭고기 시장에서 홀대받았던 개량토종닭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주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양계



△“정품眞” 토종닭은 연내 일본 진출을 꿈꾸고 있다.